

2012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 A형 정답

1	②	2	⑤	3	④	4	①	5	③
6	①	7	⑤	8	③	9	②	10	④
11	④	12	③	13	④	14	⑤	15	③
16	④	17	④	18	②	19	③	20	①
21	②	22	②	23	⑤	24	①	25	①
26	④	27	④	28	③	29	④	30	②
31	①	32	①	33	①	34	②	35	③
36	②	37	⑤	38	④	39	③	40	⑤
41	⑤	42	①	43	⑤	44	⑤	45	②

해설

1. [출제의도] 글감에서 연상할 수 있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낮에 비둘기가 바라본 세상의 모습과 밤에 부엉이가 바라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글감이다. 이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안목’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이므로 세상의 모습을 온전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바라본 것만을 맹신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내용을 연상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외국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방법은 [자료 2], [자료 3]의 어디에도 없는 항목이므로 자료를 활용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성취도 평가 결과는 OECD평균보다 높는데 비하여, 효율성은 OECD평균보다 낮으므로 적절하다. ② [자료 2]에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음이 나타나므로 [자료 1]의 학습효율성의 원인과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 ③ [자료 3]-2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학습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였으므로 [자료 1]의 낮은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④ [자료 3]에서 사교육에 의존한 학생들이 대학 입학 이후에 학업 수행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므로 [자료 2]와 연결하여 생성할 수 있는 내용이다.

3. [출제의도] 개요 수정·보완 의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II-2’는 훼손의 원인이고, ‘III-2’는 훼손에 대한 대책이다. 따라서 이 두 항목 사이에는 1:1의 대응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ㄱ)에는 관련 원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처럼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개요 수정 의견이다.

[오답풀이] ① 집필 동기 상 글을 도입하는 부분에서는 ‘천연기념물 소나무 훼손 실태’가 어떠한지 밝힐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상위 항목이 원인의 인위적 측면인데 (ㄴ)은 훼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진다. ③ (ㄷ)은 관리 업무이므로 ‘인위적 측면’이 강하고, (ㄹ)은 방제 작업이므로 자연적 측면이 강하여 두 항목의 위치를 바꿔야 한다. ⑤ ‘전통 문화제’는 이 글의 화제나 주제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⑤와 같이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4. [출제의도] 제시된 조건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①에서 ‘책이 키우는 당신’은 독서의 긍정적 효과를 뜻하고, ‘사랑방이 가꾸는 당신의 미래’는 동아리 가입에 대한 완곡한 권유를 뜻하며, 앞뒤 구절은 짝을 이루는 대구의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정답이다.

[오답풀이] ②와 ④는 완곡한 권유만, ③은 독서의 긍정적 효과만, ⑤는 대구의 형식으로 직접적인 권유만을 드러낸다.

5. [출제의도] 초고를 적절하게 퇴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진이 ~ 방지되어지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되어지면’이 주어인 ‘사진이’와 호응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르게 고치면 ‘사진이 ~ 방지되면’이라는 형태로 된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설명할 내용은 ‘포토프린터로 인쇄한 사진의 보관법’이다. ② 유사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그리고’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④ ‘별이나 습기를 받아 빛이 변하다’, ‘오래되어 변색하다.’라는 뜻을 갖는 말은 ‘바라다’가 아닌 ‘바래다’이다. ⑤ 좋은 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은 사진의 보관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6. [출제의도] 언어의 자질을 통해 어휘의 의미 자질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아저씨’는 [+남성], [+어른]이고, ‘소년’은 [+남성], [-어른], ‘아주머니’는 [-남성], [+어른], ‘소녀’는 [-남성], [-어른]이다.

7. [출제의도] 서술어 자릿수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닭았다’는 ‘상우는’이라는 주어만으로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며, 반드시 ‘아버지와’라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풀이] ③ ‘입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며, ‘입혔다’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된다. ④ ‘여긴다’와 ‘삼았다’는 ‘누가’, ‘무엇을’, ‘무엇으로’라는 성분을 필요로 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 [8~12] (가) 서경주 「그 애가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엔지르고 걸어왔을 때」, (나) 박목월 「사투리」, (다) 안도현 「북방(北方)」

8. [출제의도] 각 시에서 담고 있는 공통된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가)는 전통적인 시골의 마을 풍경에서 볼 수 있는 순박한 소년, 소녀의 애뜻한 마음결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나)는 고향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사투리’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다)는 ‘명태선’을 아들과 함께 먹고 있는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리고, 그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명태선’이라는 음식을 통해 바다와 내륙,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 세대가 하나로 통합되고 화합하고 있음을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은 (나)와 (다)이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는 과거의 인물이나 고향을 회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관찰자의 시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가)뿐이다. ②에서 두 작품 모두 부채하는 대상을 회상한다고 볼 수 있지만, 화자가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의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이나, ⑤에서의 예찬적 태도는 (가)~(다)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9. [출제의도] 두 시에 나타난 공통된 표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가)는 산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시이며, (다) 역시 자유시로 산문적 진술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각 ‘나’가 ‘그 애’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상황과, 눈 오는 겨울, ‘나’가 아들과 함께 ‘명태선’을 먹으며 추억하고 상상하며 환기하는 화자의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오답풀이] ① 의성어를 사용하여 표현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다)의 ‘쫑쫑’, ‘나박나박’ 등의 시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어조의 변화 역시 (다)

에서 확인되는데, 평서형 진술 ‘-다’로 시상을 전개하다 4연에서 추측의 어미 ‘-리라’를 사용함으로써 시적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다. ④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 역시 (다)의 5연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⑤ 두 시 모두 산문적 진술을 하고 있긴 하지만, 통사 구조(문장 구조)의 반복은 없다.

10. [출제의도] 화자의 심리와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가)의 ‘나’는 항상 ‘그 애’를 주시하고, ‘그 애’ 역시 ‘나’의 이러한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항용(항상)’은 ‘나’의 ‘그 애’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얼마나 간절하고 지속적인가를 드러낸다. 이를 눈치 채고 있는 ‘그 애’는 ‘미소’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둘 다 아무 말도 없지만, 또 시의 표현상으로 나타나는 구절 속에는 속마음을 직접 드러내는 시구가 보이지 않지만 행간에 담겨 있는 두 인물의 이러한 마음을 포착하는 것이 이 시 감상의 핵심이다. 따라서 ④는 ‘그 애’에 대해 ‘나’가 관심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오답이 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모시밭 사잇길’은 두 사람의 정서적 교감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② ‘그 애’는 ‘나’를 의식하며 정신을 집중하여 물동이에 물을 흘리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이는 ③ 이성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사춘기 소녀의 마음이기도 하다.

11.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나)는 ‘사투리’가 환기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를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시이다. ④는 ㉠의 시어들과 대조를 이루는 일반적인 자연물이다. 화자에게 고향은 단순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일반적인 자연이 아니라, ㉠처럼 화자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존재들로 각별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는 ‘향수’라는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② ㉢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고향의 정서를 환기한다. ③ ㉣는 고향의 아름다운 정경을 시각화하고 있다. ⑤ ㉤는 화자의 고향에 대한 정서가 후각적으로 집약되어 시어들이다.

12. [출제의도] 시를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다)에서 ‘명태선’은 겨울철의 별미로 ‘북방’의 정서가 담겨 있는 남방의 토속 음식이다. 북쪽 해안지방에서나 먹었음직한 명태선을 남쪽 내륙에서 음식을 통해 아들과 함께 먹는다는 사실을 통해 ‘명태선’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화합의 마음, 공동체의 기억을 환기하는 매개물이 된다. ③은 명태의 이동 경로를 통해 ‘명태선’의 유입 경로를 추측해보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화자는 ‘오오라베’라는 고향의 사투리를 들으면 말할 수 없는 정겨움을 느낀다. 이 기막힌 기분을 화자는 ‘각’이라 사투리에 실어 표현하고 있다. ④ ‘명태선’을 통해 ‘북방-면바다-명태’의 이미지가 이어진다. 따라서 ‘면바다’는 내륙과 대응되고 ‘명태’와 연결된다. 여기에는 ‘명태선’이 바다와 내륙을 이어주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는 화자의 시선이 담겨 있다.

- [13~15] (과학) 모리타 유코 「인체가 색깔을 인식하는 메커니즘」

13.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문단에서 언급되었듯이 뇌는 각 원추세포에서 보내온 흡광도 정보를 전달 받아 그 비율을 분석해 최종적으로 어떤 색깔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14.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적원추세포가 없을 경우 청색은 볼 수 있지만, 같은 밝기의 적색과 녹색을 볼 때 그 두 색깔을 같은 색깔로 인식해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적원추세포가 없는 보통 쥐는 같은 밝기의 적색과 녹색이 함께 있는 패널 앞에서 두 색깔을 구별하지 못해 우왕좌왕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청색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녹색이 어떤 색깔로 인식되어도 색깔이 다른 한 장을 판별할 수 있다. ③, ④ 청색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적색이 어떤 색깔로 인식되어도 색깔이 다른 한 장을 판별할 수 있다.

15. **【출제 의도】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G단백질은 효소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지만 효소의 증식을 촉진하지는 않는다. 화학적인 신호는 효소가 Na⁺(나트륨 이온) 채널에게 명령을 내릴 때 나타나 는 현상이다.

【16~19】(인문) 이창후 『나를 성장시키는 생각의 기술』

16. **【출제의도】 글의 중심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글은 가설연역법을 활용하여 학문적 이론들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는 과정을 귀납과 연역의 추론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어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 ② 발전과 발달 과정에 대한 내용은 없다. ③ 유용성과 성과에 대한 내용은 없다. ⑤ 극복 방안과 절충 방안에 대한 내용은 없다.

1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가설연역법의 논증 절차에 따르면 ㉔는 구체적인 사례, ㉕는 가설, ㉖는 예측, ㉗는 검증에 해당한다. 이 글에 따르면 예측이 거짓이라면 가설이 반증된다.

【오답풀이】 ① 귀납의 속성에 따라 적절하다. ② 연역의 속성에 따라 적절하다. ③ 가설에서 예측을 하는 이유이므로 적절하다. ⑤ 검증은 경험적인 방법으로 예측의 진위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1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글에 따르면 가설 설정의 단계에서는 귀납 추론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사례를 근거로 삼아 가설을 설정해야 정확한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오답풀이】 나머지 선지들은 가설 이후의 단계에 대한 내용이다.

19. **【출제의도】 글의 핵심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알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설정’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 만들어 정해 둠’이다.

【20~23】작자미상 「채봉감별곡」

20. **【출제의도】 서사구조를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 추측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상경하지 않기 위해 비밀리에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은 채봉이고, 취향은 단순히 채봉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①은 적절하지 않다.

21. **【출제의도】 대화를 비교함으로써 이야기의 진행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에서 김 참봉의 의견에 강하게 반대했던 이 부인이 [B]에서 딸은 아버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 부인의 태도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B]에서 채봉이 새롭게 등장함으로써, 김 참봉과 채봉 간의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③ [A]와 [B]에 공통된 인물인 김 참봉과 이 부인의 처지는 서로 역전된 것이 아니라 이 부인만 채봉의 혼사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다. ④ [A], [B] 모두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⑤ 계절적 배경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22.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작중 인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부모의 생각에 무조건 따르지 않고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바탕으로 필성과의 혼인을 결정한다는 점으로 보아 채봉에게서 근대성이 발견된다.

【오답풀이】 ① 마지막 부분에서 취향은 채봉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 벼슬을 얻기 위해 딸의 혼처를 정하는 김 참봉은 부귀공명이라는 당시의 가치에 매여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④ 매관매직 행위는 신분을 중시하는 봉건적 유교사상이 아직 남아 있었음을 의미한다. ⑤ 이 부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웃의 의견’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23.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하게 속담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딸을 세도가의 별실로 보내서까지 높은 벼슬을 얻으려고 하는 대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는 점에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과 어울린다.

【오답풀이】 ①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화를 낸다는 뜻이다. ② 미숙한 사람이 잘난 체하다가 일을 그르친다는 뜻이다. ③ 자기가 잘못을 하고 오히려 화를 낸다는 뜻이다. ④ 성미가 급하여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24~28】(가) 이황 「만보(晩步)」, (나) 신계영 「탄로가(嘆老歌)」, (다) 유경환 「돌층계」

24.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가)는 가을걷이가 가까워진 들녘, 갈가마귀, 해오라비 등을 보면서 화자의 처지와 대비하여 자신의 학문적 성취가 미진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작품이다. (나)는 어렸을 적 노인을 보고 비웃던 자신이 어느새 백발노인이 되었음을 탄식하는 노래이다. (다)는 돌층계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고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가)는 ‘내 인생은 홀로 무얼하는 건가’와 같은 표현을 통해 학문적 성취가 미진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탄식하고 있고, (나)는 ‘그동안에 아이들이 나 옷을 줄 어이 알리’, ‘늙고 병이 드니 백발을 어이 하리’와 같은 표현을 통해 늙어버린 자신의 상황에 대한 탄식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③ (나)에는 ‘아이야 옷지 마라’와 같은 명령하는 형식의 표현이 있으나, (다)에는 명령하는 형식의 표현이 없다.

25. **【출제의도】 작품 속에 나타난 시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㉔를 보면서 화자는 ‘농부들은 봄, 여름 동안 땀흘려가며 힘들게 일해서 결실의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과연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거리를 두고자하는 물질적 가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즉 화자는 물질적 가치를 가까이하는지, 또는 멀리하는지를 떠나서 자신의 학문적 성취가 미진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오답풀이】 ㉔는 거울을 보며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부분이다.

26. **【출제의도】 작품 간 시어의 유사한 의미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기>의 ‘배꽃’은 젊었을 때의 모습을, ‘호박꽃’은 늙어버린 모습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나)의 옛 내(옛날 젊었을 때의 모습)는 ‘호박꽃’과 연결되고, 이 얼굴(지금의 늙어버린 모습)은 ‘배꽃’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또한 ‘소년행락’은 젊었을 때의 모습을, ‘센 머리’는 늙어서 백발이 되어버린 모습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이 얼굴, 센 머리는 둘 다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의미함

27. **【출제의도】 다른 글로 고쳐 썼을 때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A]에서는 ‘삶의 과정’이라는 추상적 내용을 ‘돌층계를 밟고 올라 간다’는 공간적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표현하고 있고, <보기>의 ‘잘못한 일’을 ‘얼마나 비틀거렸는지, 얼마나 숨차게 헐떡이며 남을 밀쳤는지, 몇 번이나 헛디딜 뻔했는지, 또 뒤에서 남 보기에 흉하도록 갈지(之)자로 왔다 갔다 했었는지’와 같이 열거의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보기>의 ‘어느 새 하루가 다 지나고 있다’를 ‘그것을 헤아리는 동안 내 그림자가 길어진다’라고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A]에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는 부분이나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지 있지 않다.

28. **【출제의도】 작품 속에서 시어의 의미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㉑에서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은 저녁이 되어 해가 지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화자 자신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해 지는 모습과 뒤에 이어지는 가을날의 풍요로운 모습을 보며 그동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㉒에서 화자는 돌층계를 관찰하면서 지나는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찰해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다.

【오답풀이】 ④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며 화자가 한가함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고, ‘돌층계’를 보며 화자는 경건함을 느끼기보다는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다.

【29~31】(기술) 정경훈 「방송기술 이야기」

29. **【출제의도】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글은 ‘크로마키’기술과 ‘가상 스튜디오 기술’을 말하고 있지만 두 기술의 통합 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일기예보라는 일상의 사례를 통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② ‘크로마키’의 단점을 보완한 ‘가상 스튜디오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③ ‘크로마키’를 ‘크로마’와 ‘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⑤ ‘가상 스튜디오 기술’이 3차원적인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0. **【출제의도】 적절하게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크로마키’기술은 전경과 배경이 별도의 영상이기 때문에 전경 화면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클로즈업’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크로마키’에서는 파란색 스크린을 배경으로 촬영한 화면과 배경 화면을 합성하므로 가능하다. ③ ‘가상 스튜디오 기술’에서는 연기자와 움직임에 따라 배경화면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④ ‘가상 스튜디오 기술’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으

로 만든 배경 화면을 사용하므로 비현실적인 화면 구성이 가능, 배경 화면의 변경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⑤ ‘가상 스튜디오 기술’은 카메라의 변수를 측정하여 배경 화면이 변하므로 입체적이고 동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3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크로마키’에서는 스크린과 같은 색이 있는 부분은 이 배경 영상을 선택하여 합성한다. 전경에 있는 공을 좌측에서부터 차례로 (ㄱ), (ㄴ), (ㄷ)이라고 할 경우 스크린과 같은 색의 공은 (ㄱ)이다. 따라서 (ㄱ)은 보이지 않아야 하며, (ㄱ)부분은 배경 영상이 합성되어야 한다.

【오답풀이】 ②는 (ㄴ) 부분이 사라진 그림이다. ③은 (ㄷ) 부분이 사라진 그림이다. ④는 (ㄴ), (ㄷ) 부분이 사라진 그림이다. ⑤는 (ㄱ), (ㄴ) 부분이 사라진 그림이다.

[32~35] (예술) 윤홍인 「포토 리얼리즘의 세계」

32. [출제의도] 설명문을 읽고 개괄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글은 1960년대 미국에서 유행한 포토 리얼리즘 미술의 경향과 특징, 기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추상주의에 반대해 출현한 포토 리얼리즘은 사진을 보고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 작가의 의도를 배제하고 대상을 제시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는 포토 리얼리즘의 유형, 종류 등에 관한 언급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3. [출제의도] 중심 내용을 파악해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위 글은 사진을 보고 대상을 객관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던 포토 리얼리즘의 특징과 기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보기>는 대표적인 포토 리얼리즘 화가인 리차드 에스테스의 <버스의 반사>라는 작품인데 포토 리얼리즘 화가들은 사진을 보고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다는 점에서 ①처럼 대상을 보고 주제 의식에 맞게 대상을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오답풀이】 ② 포토 리얼리즘 화가들의 일상적인 풍경을 담은 그림을 보면 대중들도 쉽게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③ 포토 리얼리즘 미술은 대상의 윤곽을 섬세하게 표현하여 마치 사진인 듯한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④ 포토 리얼리즘 화가들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물감을 최소화하여 그림을 그렸다. ⑤ 이 글과 <보기> 설명을 참고할 때, 뉴욕 거리의 풍경을 담은 실제 사진을 보고 이를 그림으로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34. [출제의도] 주장이나 의견에 대한 비판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포토 리얼리즘 화가들은 대상을 표현하는 데 화가의 의도나 주관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대상의 객관적인 실체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보기>는 예술 작품에는 대상을 바라보는 예술가의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입장에서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감상자들에게 제시하려는 생각조차 예술가가 작품을 창작하는 어떤 감정이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생각해 ②처럼 포토 리얼리즘을 비판할 수 있다.

35. [출제의도] 문장 속에 쓰인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은 사실성이 ‘떨어지다’와 관련된 말인데 여기서 ‘떨어지다’는 ‘다른 것보다 수준이 처지거나 못하다’의 의미라 할 수 있다. ③의 ‘떨어진다’는 친화력의

‘수준이나 정도가 못하다’의 의미로 ㉠과 가장 유사한 의미이다.

【오답풀이】 ① ‘달렸거나 붙었던 것이 갈라지거나 헤어지다’의 의미이다. ② ‘이익이 남다’의 의미이다. ④ ‘진지나 성 따위가 적에게 넘어가게 되다’의 의미이다. ⑤ ‘지정된 신호 따위가 나타나다’의 의미이다.

[36~39]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이 소설은 70년대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고향을 상실하고 떠돌아다니는 세 인물(영달, 정씨, 백화)이 고향을 찾아 가는 여로(旅路)가 중심이 되는 이른바 ‘여로소설’이다.

36.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소설은 산업화 과정에서 고향을 상실하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소외된 인물인 영달과 정씨 그리고 백화 세 사람의 여정을 그린 소설이다. 이들이 폐가에서 잠시 쉬어갈 때, 백화는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며 자신이 살아온 삶을 영달과 정씨에게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백화는 ‘갈매기집’에서의 삶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자신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인물의 행동은 간결한 문체로 드러나지만 사건 전체의 박진감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③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인 배경묘사는 인물을 형상화하거나 사건을 암시하거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국적 분위기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제시된 지문에는 인물의 외양 묘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인물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37. [출제의도] 작품에 드러난 공간적 배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라)의 ‘차부’는 백화가 사망했던 군인들을 보내는 장소로 백화가 이별을 하는 공간이지만, 괴로움에 절망하는 공간은 아니다. 백화는 이 시절을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이라고 회상한다.

【오답풀이】 ① ‘감천’은 이들이 고향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타려는 공간이다. ② ‘들창 안’은 정확한 사람들의 따뜻한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지만, 이들에게는 그 소리가 ‘불투명’하게 들려 단절된 곳임을 알려준다. ③ ‘폐가’는 백화가 영달의 모습을 보고 호감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④ ‘갈매기집’은 백화가 처음 팔려간 술집으로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것두 깨달’은 공간이다. 하지만 백화는 진정한 사랑을 했던 그 시절을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이라고 회상한다.

38. [출제의도] 소설의 서술 시점(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소설에서 화자(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목소리라면, 초점화자는 사건이나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보기>에서는 이 작품에서 초점화자가 인물과 긴밀한 상태에서 그 인물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 부분을 물었으므로, ㉠이 그 부분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⑤는 객관적 입장에서 인물들의 모습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서술한 부분에 해당한다.

39. [출제의도] 작품에서 드러난 인물 간의 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기>에서 드러났듯이 인간은 대화(의사소통)를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 이 작품 역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데, (다)~(라) 부분은 백화가 자신의 과거를 영달과 정씨에게 말하는 부분이 중심을 이루며, 이를 통해 백화는 자신만이 알고 있던 ‘감춰진 자아’를 표현하여 ‘공개된 자아’를 확대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백화는 갈매기집에서 지냈던 자신의 ‘감춰진 자아’를 표현함으로써 ‘공개된 자아’를 확대하고 있다. ② 백화는 막연한 두려움에 군 죄수를 무

서워하지 않았다. ④ 백화가 옷 한 벌 못 사 입어도 행복했던 모습은 백화의 ‘감춰진 자아’에 해당한다. ⑤ 여러 고장을 떠돌았던 백화의 모습은 ‘감춰진 자아’에 해당하며, 이를 표현함으로써 ‘공개된 자아’를 확대하고 있다.

[40~42] (과학) 요시무라 진 『일벌의 이타 행동에 담겨 있는 유전학적 비밀』

40.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일벌은 여왕벌이 낳은 수정란에서 태어나고, 수벌은 여왕벌이 낳은 미수정란에서 태어난다.

【오답풀이】 ①은 3문단, ②와 ③은 1문단, ④는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세부 정보와 새로 접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벌 군집과 벌거숭이두더지쥐 군집은 번식 개체와 비번식 개체로 분화된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 두 군집 모두 번식 개체와 비번식 개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전자의 조합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두 군집의 실제 혈연도가 높은 것은 생식 능력이 없는 비번식 개체가 존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벌 군집(㉡)은 ‘배수-단수제’의 유전양식을 갖는다. ② 벌거숭이두더지쥐(㉢) 군집은 벌 군집(㉡)에 비해 이론적인 혈연도가 낮다. ③ 벌 군집(가)의 먹이 경쟁에 대한 정보가 없고, 벌거숭이두더지쥐(㉢)가 독립된 번식을 하지 않는 것은 천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이지 그것을 없애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④ 벌 군집(㉡)과 벌거숭이두더지쥐 군집(㉢)에서 번식 암컷의 수는 한 마리로 동일하다.

42.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일벌 ‘F’는 유전자형이 AB이다. 수벌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B’ 또는 ‘C’가 된다. 수벌이 ‘B’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을 때는 일벌 ‘F’와 50%의 유전자가 일치하게 되고, ‘C’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을 때는 0%가 된다. 혈연도는 평균값이므로 일벌 ‘F’와 수벌 사이의 혈연도는 25%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4칸이 음영으로 처리된 것이 수벌과의 혈연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3~45] (언어) 박재연 『한국어의 양태 어미 연구』

43. [출제의도] 글에 드러난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지’, ‘-네’, ‘-구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 종결어미가 어떠한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서술하고 있다. 종결어미 ‘-지’는 어떤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표현하고 ‘-네’는 어떤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표현하며, ‘-구나’는 ‘-네’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 ‘-구나’는 ‘-네’에 비해 추론에 의한 앎을 표현할 때에도 자유롭게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4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네’는 감각 기관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주로 사용된다. ‘ㄴ’에 사용된 ‘-네’는 꽃향기를 직접 맡은 후 알게 된 내용을 말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네’는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가 직접 경험과 관련된다는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표현할 때 사용될 수 있다. ② ‘-네’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표현할 때 사용될 수 있다. ③ ㄴ의 화자는

양말에 구멍이 난 것을 알고 있었으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 ‘-네’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④ 이 글의 설명에 따르면 종결 어미 ‘-어’를 사용했을 때와 ‘-지’, ‘-네’ 등을 사용했을 때 문장이 전달하는 느낌은 다르다.

45. [출제의도] 글의 특정 어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구나’는 감각 기관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었음을 표현할 때, 추론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잃어버린 지우개가 책상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아, 지우개가 여기 있구나.”라고 말할 때 ‘-구나’는 감각 기관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③, ④, ⑤ 발화의 과정에서 추론의 과정이 개입하고 있다.